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 인사권독립 건의

전국시 · 도의회의장 협의회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의 간담회 에서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윤식 신임 행정자치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인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대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1인당 연간 1조2,866억 원을 심의하면서 9명의 보좌 인력을 두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의원은 1인당 연간 3,679억 원을 심의하면서 단 한 명의 보좌 인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 감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증"이라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행정 사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규제개혁들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업무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시 대상인 집행기관과 감시 주체인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분리·독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장관은 이같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지방의회의 과도한 업무와 의원님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며 "중앙과 지방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점차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안진수기자

도시가스 요금 내달 10.3% 인하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원료비)가 오는 3월부터 10.3%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9.7% 인하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인하로 올해에만 총 19%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지난 해 대비 132.5원 인하돼 월 평균 가구당 부담액이 6,625원(연 79,50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은 계속 증가해 2015년 11월 정점을 찍었다.

단위 가스(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7.0962원 이었으나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인하로 14.0583원이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도민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 투자확대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지역일반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개월(홀수월)마다 조정·승인한다.

공급비용(소매요금)은 매년 7월1일 도지사가 재 산정 조정하고 있다.

/정영수기자

제주해군기지 시대 열렸다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8년 여 만에 완공된 제주기지는 함정 20여척과 15만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다. 민항은 오는 2017년 7월부터 운영된다.

도의회 운영위 올해부터 도민참여 조례공모제 연 2회 실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백경태)는 올해부터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를 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북 도정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도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조례 제안 제도인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 추진계획을 세웠다.

운영위는 도민들의 생활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열린의회를 실현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바꿔 나간다는 방안이다. 접수기간은 상반기는 3월부터 6월말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말까지다. 접수가 각각 완료되면 '도의회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입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상장을 수여받게 된다.

도의회는 공모전 참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달 말까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에 팝업창을 개설하고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까운 시일내에 우편이나 방문접수에 대한 준비도 마칠 방침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안(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조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연구회(1차심사) 또는 운영위원회(2차심사)에서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는다.

/신광영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지역 특산품 서울 용산역 판매 시작

전북지역 특산품이 용산역에서 판매를 실시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 전북 특산품관이 용산역에서 개관해 전북에서 생산된 홍삼, 한지제품 등을 판매한다.

이번에 개관한 전북 특산품관은 면세점 7층 지자체관에 구분면적 24㎡의 크기로 이는 지난 해 5월 도와 (주)HDC신라가 체결한 '전라북도 외래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근거해 입점하게 됐다.

전북 특산품관에서는 홍삼, 한지제품 등 전북지역 특산품은 물론 앞으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기념품과 오는 3월25일에는 익산 보석류 등을 전시·판매 할 예정이다.

이는 도의 문화적 특성(역사, 지리적 특색)과 전북의 스토리가 담긴 관광기념품을 판매 함으로써 도의 관광기념품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이번에 개관한 면세점이 KTX와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접근성을 십분 활용한 전북 관광상품을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K-Discovery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또한 개별관광객(FIT)에게는 면세점 이용시, KTX 승차권이나 전북도 외국인 유치 사업인 '서울-전북 간 외국인 셔틀버스 승차권'을 증정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VIP고객에게는 면세점 측에서 차편과 가이드를 제공해 전북 관광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기획하고 있다.

/정영수기자

안전수칙 준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 제재 · 처벌 수준 적정성 검토 74개 개선 과제 선정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낚시배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이번 방안의 배경이 됐다. 당시 승선자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자 관리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명 관련 ▲위반 반복 발생 ▲언론·국회 문제제기 ▲선진국 대비 경미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자체진단과 연구기관의 보완진단 등을 거쳐 기본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처벌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 총 74개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음주운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자전거도로 차량통행(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낚시배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 어선 사용(500만원 이하 벌금)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하의 벌금·6개월 이내 사격장 운영정지)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 대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기존 제재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 32건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원료 사용시 제재 상향(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사용방해로 인명피해 발생시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에 대한 제한 근거 명확화 및 제재 강화(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기존 제재 규정이 명확하기 않거나 세부기준이 없는 10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74개 개선 과제 중 시행령 6건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률 68건에 대해서는 입법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안진수기자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쉽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운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등 방송출연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